



한국군  
파병 반대  
2, 3면

이란 전쟁과  
중동 정세  
4~7면

미국의 힘은  
한계에 도달했는가?  
8~9면

천공-2 UAE 수출  
방어 무기 지원은  
어쩔 수 없다? 10면

지방선거  
주류 정치권 진출 기회  
노리는 극우 11면



# 호르무즈해협은 죽음의 바다가 될 것이다

**파병은 절대 안 된다**

관련 기사 2~3면



3월 16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한국 정부는 이란 전쟁 파병 생각도 말라' 긴급 기자회견

김준환

#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말라

김준환

트럼프의 파병 요청은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차질을 빚고 있음을 드러냈다. 초기 기습 공격으로 이란 정권을 붕괴시키지 못했고, 현재 이란의 응전을 분쇄하지도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다른 국가들에 파병을 요구하기 바로 전날에도 “전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고, 트럼프의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는 미군이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력을 90퍼센트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바로 몇 시간 후 미국의 역내 핵심 우방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의 팽공을 받았다.

트럼프가 받는 압박은 커지고 있다. 특히,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퍼센트 이상이 오가는 호르무즈해협의 봉쇄를 미국이 풀지 못하자 원자재 가격과 금융 지표가 요동쳤다. 트럼프는 예상했던 일이라고 특유의 허세를 부렸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가뜩이나 취약하던 공급망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위협에 직면했다는 분석들이 제기됐다. 이는 잠재적으로 미국 패권에 중대한 위협 요인이다. 2007~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는 미국의 패권에 상처를 준 중요한 한 계기가 됐다.

트럼프가 호르무즈해협 ‘탈환’에 힘을 보태라고 동맹국들에게 요구한 것은 미국이 단독으로 봉쇄를 해제하지 못함을 시인한 것이다.

트럼프는 동맹국 군함들이 이란의 공격을 상대할 동안 미군이 “해역 전체를 폭격해 초토화하고 이란 배를 계속 격침”할 것이라고 한다. 동맹국 군인들이 미군 대신 드론 밥이 되라는 것이다.

미군에게는 호르무즈해협 전체를 초토화할 포격·폭격 능력이 있지만,

이란의 공격을 모두 차단하기에는 현재 미군의 파견 전력도 모자란다. 그래서 트럼프는 즉각 병력을 동원할 수 있거나 이미 동원 중인 국가들에 군함을 폭 집어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동맹국들의 반응은 지금까지는 뜻뜻미지근하다. 영국처럼 답변을 회피하거나, 독일처럼 묻지도 않았는데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작전 성공 가능성도 의심된다. 호르무즈해협은 가장 좁은 구역의 폭이 39킬로미터에 불과해, 이란이 드론을 이용해 군함과 상선을 괴롭히기 좋은 전장이다. 미군이 이곳을 ‘킬박스’라고 부르는 이유다.

개전 후 이곳에서 미군의 총 사상률은 1.43퍼센트에 이른다(미국 언론 <밀리터리닷컴> 추산). 단순 계산으로 청해부대 300명이 투입되면 네 명이 죽거나 다치는 꼴인데, 군사전문가들은 이것이 2003~2011년 이라크 전쟁의 총 사상률에 약간 못 미치는 높은 수치라고 지적한다.

## 파병은 군사적·정치적 지지, 미국 제국주의 지원

미국이 동맹을 모아 다국적군을 구성하려는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 국제적 지지를 모아 전쟁의 정당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애초에 이번 전쟁은 미국이 냉전 종식 후 벌인 주요 전쟁 중 동맹국의 동참이 가장 적었다. 나토와 유엔의 동의를 받지 못해 빈축을 샀던 2003년 이라크 침공 때조차 영국·스페인·이탈리아 등이 병력을 보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은 이스라엘과만 공조해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특히 지난 2년여간 벌인 인종학살과 중동 확전으로 세계적 반발을 사고 있다.

트럼프는 돌파하기 어려울 듯한 난국이 닥치자 그제서야 동맹국들을 모으려 한다. 유럽 주요국들과 한국·일본이 트럼프의 요청에 응해 다국적군을 결성하면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저지른 막대한 학살 범죄를 공동 책임지는 것이다.

평범한 청년들을 제물 삼아 침략·강탈 전쟁을 도와야 하는가?

트럼프는 제국주의적 목표를 위해 이란인 수천 명이 죽는 것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하는 동시에 팔레스타인인들을 인종학살 하고 레바논을 침공해 폭격하며 중동 곳곳을 피로 물들이고 있다.

그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파병은 미나브 초등학교에 떨어진 미사일을 편든다는 것이고, 가자의 병원들을 파괴한 자들을 응징의 공포에서 빠져나오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파병은 평범한 이란인들과 중동인들을 더 위협케 할 것이고, 팔레스타인인들이 더 고립되고 공격받게 할 것이다.

파병은 그 자체로 트럼프의 전쟁 드라이브를 지지한다는 선언이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손쉽게 납치한 것에 고무돼 이란 공격에 나섰던 것 같은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들어 트럼프가 편 일련의 공격이 모두 중국을 의식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모두 경제 봉쇄 때문에 중국에 석유를 많이 수출했고, 중국의 지역 교두보 구실을 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 강탈 의지를 표명할 때도 북극해에서 중국을 축출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파병은 중동의 참상을 키울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가 위협해지는 데에도 일조할 일이다.

## 이재명 정부, “한미 간 긴밀히 소통”한다고?

일고의 가치도 없이 거부해 마땅한 이 ‘제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는 “한미 간 긴밀히 소통 중이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한다.

서해에서 미중 전투기가 대치할 때도 알리지 않았고, 주한미군 무기도 일방적으로 철수시킨 미국이, 상의도 없이 시작한 이번 전쟁에 관해 한국과 무엇을 더 “긴밀히 소통”하겠는가?

한국 정부는 일본의 결정을 참고하려고 시간을 끄는 듯하지만, 동시에 파병할 때 얻어 낼 ‘국익’(한국 자본가들을 이롭게 할 대가)을 두고도 고심할 것이다. 역대 한국 정부들이 미국의 전쟁 지원 요청에 거의 빠짐없이 화답해 온 역사를 떠올리면서 말이다.

2004년 한국 정부가 전투병을 파병해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지원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파병’이라고 정당화했다.

하지만 파병은 한국 자본주의의 정치적 위상을 올렸지만 그 파병은 노무현이 약속한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하에서 주한미군은 해외 파병과 대중국 방어용으로의 전환이 시작됐다(“전략적 유연성”). 평택 미군기지 합의와 건설이 바로 그 척도였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도 그때 시작됐다.

6자회담은 말잔치로 끝났고, 미국의 대북 적대 노선은 변하지 않았다. 남북 관계도 경색됐다. 그래서, 임기 막판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어도 남한 정부는 북한이 핵무장 노선으로 가는 걸 말릴 수단도 없었다.

▶ 3면으로 이어짐

성명

#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파병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라

3월 14일(미국 시각)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 등 5개국에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요구했다.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이 난관에 봉착하자 다른 국가들에게 더 적극 거들라고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중동에서 수십 년간 겪어 온 실패와 패권의 상대적 쇠퇴를 만회하고 중동을 재편하기를 바라며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수많은 평범한 이란인들의 죽음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폭격을 퍼부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호언장담과 달리 상황은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나흘 안에 끝난다던 전쟁은 이미 보름을 넘겼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다. 공중 폭격만으로는 이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음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고, 걸프 지역의 미국 우방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이란은 세계 해상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고 있다.

이런 난관 속에서 이제 트럼프는 불바다를 만들어서라도 호르무즈해협을 '탈환'하겠다고 하고 있다.

트럼프는 한국 등 5개국이 파병을 결정할 동안 "해협 해안을 폭격으로 초토화하고 해상에서 이란 배를 계속



한국군 파병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모험과 학살에 힘을 보태는 일이다

격침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인근에 투입된 청해부대의 임무를 확대·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트럼프의 파병 요구에 응한다면, 이는 수많은 한국인의 평화 염원을 배신하고 미국의 패권을 위한 모험과 학살에 더 적극 가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미 한국은 UAE 등 미국의 중동 우방들에 무기를 지원하는 등 그 전쟁에 한 발 들여 놓고 있다. 하지만 파병은 평범한 한국인 청년들의 목숨을 미국 패권 전쟁의 제물로 바치는 것을 뜻할 것이다.

냉전 종식 이래 미국은 중동에서 전쟁을 벌일 때마다 한국에 지원을 요구

했고, 한국 정부는 거의 빠짐없이 화답해 왔다. 미국 주도 세계 질서에 적극 편승해 한국 자본주의의 이익('국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도우려 2004년 자이툰 부대를 파병했다. 노무현은 파병이 이라크 "평화·재건"에 기여하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구상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고, 이라크로 파견된 한국인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만일 트럼프가 이번 전쟁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트럼프는 패권을 위한 더 큰 모험을 감행할 것이다. 트럼프가 1월 초 베네수엘라에서 거둔 성공에 고무돼 이번 전쟁을 일으켰듯이 말이다.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재명 정부의 파병에 반대하는 운동을 즉시 일으켜야 한다. 만에 하나 이재명 정부가 파병을 하더라도 국제 반전 운동의 일부로서 단호하게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반대한다!

이재명 정부는 파병 말라!

2026년 3월 15일

노동자연대

▶ 2면에서 이어짐

2020년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의 요청에 화답해 청해부대를 '단독 작전' 형식으로 호르무즈해협에 투입했다. 당시 이란은 이에 격분해 한국 유조선 을 나포했다.

이번에 파병한다고 해서 호르무즈해협을 지나야 할 선박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발이 묶인 상선에 있는 전정근 HMM해상노조 위원장은 이렇게 전했다.(3월 17일자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금 여기는 해적이 아니라 미사일·드론·기뢰가 날아다니는 전시 상황이다 보니 [군함이] 호송을 한다고 [해도 위험합니다.]"

"선박의 안전과 선원들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선원은 군인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 이

유가 없습니다."

전정근 위원장은 파병이 아니라 전쟁 중단만이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답했다.

## 국회만 바라볼 일 아니고 반전 운동 키워야

일각에서는 국회가 파병을 부결하기를 기대한다. 심지어 일본 극우 여당 자민당조차 파병에 난색을 표하며 말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파병 관련 입장 표명을 극도로 삼가고 있다. 명백하게 파병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지금까지 이기현·위성곤 의원 두 명뿐이다.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너도나도 한소리 한 것과 대비된다.

진보당 의원단과 조국혁신당 김준

형 의원이 파병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그 소수의 의원들이 원내 협상으로 민주당을 움직이리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민중의소리>는 사설에서 "파병반대 국민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옹계 주장했다. "국민들이 나서서 파병 반대 여론이 강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나설 수 있고, 정부에 명분이 생긴다."

그러나 과거 민주당은 해외 파병 결정과 파병 연장에 줄곧 찬성해 왔다. 명백한 제국주의 침략 전쟁 동참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병, 레바논 파병, 소말리아 파병, UAE 파병 등. 민주당도 한미 동맹 문제에서는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반전 여론을 대변하는 반전 운동의 압력은 민주당 내에서 소수의 반란표만 조직할 수 있었고, 결국 파병되자

운동의 기세도 꺾인 경험이 있다(관련 기사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전쟁 파병 20년: 미국의 약소국 강점과 황폐화를 돕다'). 국회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반전 운동이 필요한 이유이다.

한편, 이라크 파병 경험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극우의 부상과 관련 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파병으로 트럼프를 돕는다면 '원조 친미'인 극우의 기세에 득이 될 것이다. 이미 한국 극우는 입을 모아 미국의 이란 전쟁을 응원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전쟁 지원은 그들의 정당성을 강화한다.

트럼프·네타냐후 전쟁 반대 운동은 전쟁과 전쟁이 키울 생계비 고통, 청년들의 좌절과 울분, 권위주의·군국주의 강화, 극우의 발호 등 각종 위기에 맞설 저항과 연결될 수 있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이란에서 갈수록 커져가는 트럼프의 곤경

지난 열흘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타코’(TACO)를 하려면 상대방이 응해 줘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타코’는 “트럼프는 언제나 먼저 꼬리를 내린다”는 뜻으로, 트럼프가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해 놓고서 도로 후퇴하는 것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지난주 초 트럼프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일으킨 전쟁에서 자신이 ‘타코’를 할 태세가 됐다는 뜻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예컨대 그는 전쟁이 “거의 완수됐다”고 말했다.

그 말에 유가가 급락하고 주가가 올랐다. 지난해 6월 이란을 상대로 한 ‘12일 전쟁’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예상한 것이다. 당시 트럼프는 하루 동안 이란을 폭격한 뒤 승리를 선언하고, 더 장기적인 공세를 펴려는 이스라엘을 제지했다. 이란은 카타르의 미군 기지를 순전히 상징적으로 공격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란 이슬람공화국이 트럼프의 ‘타코’ 신호에 응해 주지 않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최고지도자를 살해했고, 이란에서 대규모 파괴를 자행하고 민간인 천여 명을 죽였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꺾 수 있는 휴전을 또다시 체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란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믿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트럼프는 두 번이나 이란을 협상 도중에 공격했다. 이스라엘로 말할 것 같으면, 언론들은 이스라엘 군사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보도했다. “이란에서 진행 중인 작전의 목표는 정권 교체가 아니다. 이란 정권을 ‘약화시키고 뒤흔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은  
2023년 10월 7일 이래  
이스라엘이 벌여 온  
전쟁의 연장일 뿐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영향력은 이미 크게 손상됐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은 2023년 10월 7일 이래 이스라엘이 벌여 온 전쟁의 연장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행사하는 극단적인 폭력은 중동 내의 경쟁자들을 겁주거나 궤멸시키고,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굳히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맞서 이란은 적들의 전쟁의지를 꺾기 위해 군사전문가들이 말하는 “비대칭전”을 구사하고 있다. 군사력으로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상대가 안 된다. 그러나 이란은 두 가지 주요 자산이 있다.

하나는 미사일과 드론이다. 이란이 발사하는 드론뿐 아니라, 레바논의 저항 운동 헤즈볼라가 발사하는 드론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타격하고 있다. 분석가인 에스판디아르 바트만켈리지에 따르면 사헤드-136 자폭 드론의 비용은 7,000달러에 불과하다. 그전 추정치인 2만 ~ 3만 5,000달러보다 훨씬

저렴한 액수다.

이란의 또 다른 자산은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는 능력이다. 그 해협을 통해 세계 석유·가스 생산량의 4분의 1이 걸프(페르시아만)에서 수출된다. 유가는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했다. 이는 물가를 다시 상승케 해 세계적 생계비 위기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뉴욕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좌절한 트럼프는 합참의장 댄 케인을 불러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을 다시 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다그쳐 물었다. 답변은 간단했다. 이란 군인이거나 무장 조직 대원 한 명만 고속정을 타고 재빠르게 해협의 좁은 목에 들어오면, 느리게 이동하는 대형 유조선에 미사일을 쏘거나 부착식 기뢰를 붙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국은 “신뢰성”을 잃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대표로 활동했다

않는 데 갈수록 집착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제 전쟁을 확대할 방법을 찾고 있는 듯하다.

일본에 배치돼 있던 미국의 제31해병 원정대가 중동에 파견됐다. 이 부대는 미국 특수부대와 함께 지상 작전에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이란 영토의 일부를 장악하거나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을 탈취하는 작전에 이용될 수 있다.

## ‘타코’

이런 극도로 위험한 작전 과정에서 미국은 호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미국의 압박으로 그 작전에 가담한 동맹국들도 호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미국 제국주의의 세계적 입지는 이미 크게 손상됐다.

미국 권력 핵심부의 내부 회보라고 할 수 있는 《포린 폴리시》는 이렇게 개탄한다. “걸프 연안국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다고 더는 믿지 않는다. 걸프 연안국들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공공연히 협력하고 있지만, 갈수록 이스라엘을 잠재적 동맹이 아니라 위협으로 여길 것이다.”

다른 곳의 자본주의 지배자들도 비슷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란의 소모전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중동으로 옮겼다.

사드가 처음 한국에 배치됐을 때 중국은 미국이 그것으로 자신을 겨누는 것에 분개했다. 내가 한국 대통령이라면 이제 베이징형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을 것이다.

# 이스라엘에 맞선 레바논인들의 저항

시문 아사프 레바논의 좌파 언론 '알 만슈르'와 '퍼블릭 소스'의 편집위원

중동에서 전개되는 사태를 보며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마주친 모든 사람들이 — 친인척, 직장 동료, 심지어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도 — 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제(3월 7일) 테헤란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석유 저장 시설을 공격해 거대한 불길 이 치솟았습니다. 미군은 167명의 여자 초등학교 학생을 살해했고, 인도에서 열린 관함식을 마치고 돌아오던 이란 군함을 [인도양에서] 교전 중이 아닌데도 격침했죠. 그들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이런 행태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제국주의 역학의 실제 변화를 나타냅니다. 제2차세계대전 이래 우세했던 자유주의적 제국주의, 즉 이른바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저물고 포식성 제국주의의 시기에 들어선 것입니다. 트럼프와 그의 손아귀에 있는 네타냐후(네타냐후는 트럼프가 자기 손아귀에 있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는 이 전쟁을 기회 삼아 중동을 재편하려 합니다. 이스라엘을 중동의 최강자로 등극시키고 레바논, 팔레스타인, 예멘 등 저항을 최대한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이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것이죠.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에 배치한 군사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레바논을 침공할 것이 분명합니다. 1982년 레바논을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은 3만 명을 학살하고 레바논을 폐허로 만드는 만행을 저질렀죠.

## 대(大)이스라엘

이스라엘 권력층의 일부는 지금을 기회로 여깁니다. 헤즈볼라와 레바논 남부의 저항 세력을 꺾어버릴 뿐 아니라, 리타니강 이남의 레바논 남부를 차지할 기회로 여기는 것이죠. 그곳은 전략적 요충지이고, 시온주의자들이 1919년 이래 줄곧 노려 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시온주의자들이 처음 제작한 '대(大)이스라엘' 지도에는 레바논 남부의 도시들인 티레와 시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조만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입하거나 어쩌



3월 2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1,000명 가까이 목숨을 잃고 2,000명 넘게 부상당했다

면 전면 침공까지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3월 16일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지상전을 개시했다. — 역자]

그러나 그들의 전략이 실패할 공산 또한 매우 큼니다.

그들은 레바논 남부의 모든 민간인에게 떠나라고 요구하고, 그런 다음에는 베이루트 남부의 거대한 노동계급 지구인 다히예의 민간인들에게도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레바논 남부와 베이루트 남부를 가자지구처럼 만들겠다고 위협했죠.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고요.

소위 '휴전' 이래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끊임없이 공격해 왔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건축가들과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파괴된 주택을 복구하려는 노동자들을 죽이는 데서 이스라엘군이 희열을 느끼는 듯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저항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항은 재조직되고 되살아났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측이 모르는 듯한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레바논군으로 하여금 잔존 저항 세력을 해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여기서 "저항 세력"은 헤즈볼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폭이 훨씬 넓은데, 레바논에는 헤즈볼라 외에도 여러 저항 조직이 있습니다.)

며칠 전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을 향한] 무력 저항을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레바논 내전 종전 이래 처음으로



종파를 초월한 단결 가능성을 보여 준 2019년 레바논 항쟁

로 국민의 상당수를 무장 해제시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오늘(3월 8일) 레바논군은 사실상 이를 따르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바논군은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물러서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죠. 전쟁은 네타냐후와 레바논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종파 간 긴장을 부추기거나 재점화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레바논 남부나 베이루트 남부의 시아파 지역을 공격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피신한 시아파 난민들을 돕는 난민 연대 네트워크도 공격하려 합니다. 그래서 난민들을 받아 준 그리스도인 지역을 공격하기도 했죠. 모두를 겁에 질리게

하고, 내전이 벌어질 조건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어난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2019년 레바논에서 일어난 항쟁의 유산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항쟁으로 종파와 종단의 차이를 뛰어넘는 정서가 형성됐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수십 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 결과 정부에 대한 광범한 반감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침공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12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뒤] 이스라엘은 시리아 남부 일대를 장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의 과도 정부와 이스라엘 사이에 긴장이 생기고 있

▶ 6면으로 이어짐

## ▶ 5면에서 이어짐

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에서 인종청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자지구에서 벌인 일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원래의 모습이라고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은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종족 간 긴장도 부추기려 합니다. 특히 이란 북부의 쿠르드인들을 이용하려 하고, 그럼으로써 이라크 북부와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의 쿠르드인들을 끌어들이려 하죠.

이스라엘이 부추기려 하는 이런 갈등들은 장기간의 전쟁과 재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의 또 다른 요소는 트럼프가 마치 기업 최고경영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기업들의 경영자를 해임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교체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베네수엘라에서는 대통령 마두로를 납치한 뒤 정권 내의 다른 인사와 거래를 했습니다.

이란의 경우, 트럼프는 [1979년 이란 혁명 때 타도된] 사의 아들 레자 팔레비를 차기 이란 지도자감에서 제쳐 버렸습니다. 팔레비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겠지만, 트럼프는 그에게 사실상 '너는 별로 쓸모가 없다. 미국의 이익을 돌볼 인물을 정권 내에서 찾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트럼프는 쿠바를 공격하겠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분명 트럼프에게는 일련의 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간선거라는 시간 제한이 있죠. 트럼프는 그때까지 자신의 구상을 최대한 실현하려 합니다.

## 11개국

그러나 이제 그 일이 꼬이고 있습니다. 이란에서 일으킨 전쟁이 걸프 전역으로 번지고 있을 뿐 아니라(대략 11개국이 전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승리할 어떠한 보장도 없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죠.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이 있고, 이란은 그 공격을 버텨 내는 것 말고는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란 정권에게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정권이 살

아남으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는 것입니다. 레바논과 같은 상황입니다. 레바논에서도 저항이 살아남으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이죠.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슬람주의 저항의 한계에 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레바논 사람들, 특히 저와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1982~2000년 동안 레바논 남부에서 저항 세력이 이스라엘의 점령에 맞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맞선 저항을 레바논 내에서 억압받던 사람들의 저항과 긴밀하게 결합된 것이었고 헤즈볼라 같은 세력도 그런 흐름 속에서 성장한 것이죠. 특히, 2006년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헤즈볼라는 사람들에게서 크게 존경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헤즈볼라는 레바논 국가와 거래를 하고 그 국가의 일부가 되더니, 급기야는 대중항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짓밟는 세력의 일부가 됐습니다. 특히 2011년 시리아 혁명을 짓밟는 데 일조하는 나쁜 짓을 했죠. 그뿐 아니라 2019년 레바논에서 항쟁이 일어나고 레바논 정규군이 진압 명령을 거부할 기미가 보였을 때, 헤즈볼라는 지지자들을 모아 항쟁을 대신 짓밟으려 했습니다.

이슬람주의 저항 세력에게는 이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한때 국가에 맞섰지만 국가의 일부가 되려고 하고 실제로 그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레바논의 특수성은 끊임없이 팽창하려는 포식성 국가 이스라엘의 존재입니다. 그 때문에 이슬람주의 저항 세력이 레바논 국가의 항구적 일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점은, 현재 레바논에서는 연대의 행위 자체가 혁명적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바논 남부 피난민이나 저항 세력과 연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레바논과 중동 전역에서 벌어질 일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집단에 나머지 집단들이 등을 돌리는 일은 현재 벌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정치적 타격을 줄 것입니다.



화학 테러나 다름없는 이스라엘의 테헤란 석유 시설 폭격

## 전쟁에 맞선 혁명적 반제국주의 전략

앤 알렉산더 케임브리지대학교 조교수  
중동 전문지 《미들이스트 솔리더리티》 편집인

우리는 지난 2년 넘게 가자에서 인종학살이 이어지고 팔레스타인인들이 그에 맞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까지 끔찍한 참상의 원인에는 시온주의 국가의 인종차별과 정착자 식민 지배 프로젝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 시스템의 더 심층적인 위기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험을 올바르게 분석하는 데서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이 인종학살 성격을 띠고, 장기화되고, 또 중동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것은 세계적 시스템의 중심부가 겪고 있는 위기의 증상입니다. 그 위기는 군사적·경제적으로 지구상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이, 중국이라는 신흥 경쟁국에게서 만만찮은 압박을 받는 데서 비롯합니다.

물론, 중국은 미국에 맞먹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 규모와 관련된 수많은 지표에서 중국은 미국을 앞질렀고, 특정 산

업 생산과 기술 분야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분야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명백히 미국의 패권은 쇠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 강대국들 사이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경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의 하나가 주류 논평가들조차 이제는 "제국주의"라고 일컫는 현상입니다. 자원 강탈이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납치 등(파이낸셜 타임스)나 <이코노미스트>조차 "제국주의"라고 일컫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는 세계 도처에서 함포 외교, 미사일 외교를 구사하고, 폭격으로 정권 교체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왜 중요할까요? 세계적 시스템의 중심부에서 진행 중인 위기의 구조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 전쟁이 미·중의 군사적 충돌로 비화하는 데에는 여전히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갖는 성격을 봐야 합니다.

걸프 지역은 미국과 연계된 자본이, 중국 연계 자본과 격렬한 경쟁을 벌이는 곳 중 하나입니다. 세계적 탄화수소(석유와 가스) 유통망은 동방과 중국을 향하도록 재편돼, 그곳의 연료와 석유 화학 공업의 원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산 상품과 중국의 첨단 기술과 자본이 걸프 지역에서 데이터센터나 케이블망 등 대규모 디지털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데 투입돼 왔습니다.

이처럼 중동은 세계적 수준의 자본주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일종의 마찰 지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찰은 폭탄과 미사일이 쏟아지는 물리적 위협이 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일으킨 전쟁 때문이죠.

이것이 제가 짚고자 한 첫 번째 요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유혈낭자한 세력 관계 재편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재편은 이스라엘에 의해 군사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군사적 우위를 중심으로 중동을 재편하고 싶어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국가는 극도로 공세적인 팽창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그렇게 행동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구축하고 숭한 범죄를 자행했을 뿐 아니라, 이전에도 레바논을 침공하고 다른 중동 국가들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사례로는 1967년 중동 전쟁과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내 경쟁 시스템에는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란도 그 경쟁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이란은 1980년대 후반부터 역내 영향력을 재건하고 군사·외교 동맹을 구축



미국과 이스라엘의 패배는 중동에서 아래로부터 반제국주의 투쟁을 고무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것이 이후 이른바 '저항의 축'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2000년대 중반에 이라크 내의 동맹 세력들과 관계를 구축한 한편, 시리아 아사드 정권과의 오랜 관계를 이어갔죠.

이란 정권은 시리아에서 반혁명적 구실을 했습니다. 2011년 아사드 정권에 맞서 대중 항쟁이 일어났을 때 헤즈볼라와 함께 이를 진압하는 데 일조한 것이죠.

### 2003년 이라크

이란 정권은 미국이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겪은 낭패에서 득을 봤습니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라크의 쿠르드인들을 이용하고, 수많은 이라크인들을 살해하고, 많은 지역을 폐허로 만들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후 수년 동안 이라크를 통제하기 위해 수차례 재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어제(3월 7일) 런던에서 열린 반전 집회의 연설자들이 옹골격하게 경고한

바와도 관련 있습니다. 미국의 개입이 2003년 이라크 침공 때와 마찬가지로 평화와 번영이 아니라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라크 침공은 미국에게도 재앙이었습니다. 미국에 처참한 군사적 패배를 안긴 것은 이라크 국가가 아니라 다양한 이라크인 저항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주요 수혜자가 이란 정권이었습니다. 이라크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란 정권은 이란 내부로부터의 반발과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이란 정권은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표방하고 미국을 실제로 적대했지만, 그로부터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하기는커녕 자국민들의 갈수록 커지는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란 정권은 이란 자본을 이롭게 하는 권위주의 정권이 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 이란 정권은 대선 결과를 둘러싸고 일어난 민주주의 투쟁 물결에 직면했고, 그 후에도 연료비 인상과 생계비 위기를 둘러싼

항쟁과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투쟁에 직면했습니다. 2022년에는 마흐사 아미니라는 젊은 여성이 히잡을 올바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잡혀갔다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항쟁이 일어났죠.

이것은 역내의 어느 국가도 제국주의에 맞설 효과적인 대안이 되지 못함을 보여 줍니다. 이란 등의 정권과 미국 사이의 적대 관계는 분명 실질적인 것이지만, 그런 세력들은 진정한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중동 전역의 조직 노동자들과 대중 운동들에 기대를 걸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아래로부터의 반제국주의 투쟁을 재건할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와 자본주의의 위기에 관해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 당시 투쟁이 정점에 올랐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호메이니를 비롯한 이슬람공화국 지도자들이 권력을 장악했던 시기가 아닙니다. 그 혁명의 전성기는 이란 석유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한 기구를 통해 이란의 석유 산업을 장악하고, 일시적으로나마 그 핵심 산업 부문에 대해 노동자들이 민주적인 통제를 행사했을 때였습니다.

물론, 당장은 그런 일이 되풀이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를 불태우고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전쟁과 파괴를 몰고 오는 체제에 맞서 중동의 평범한 사람들이 사뭇 다른 종류의 무기로 대결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출처 'Trump's War on Iran - Anti-Imperialist Strategy & Resistance from Below' (SWP TV, 2026.3.10) / 번역이원웅

신문 아사프와 앤 알렉산더의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한 발제다. 청중 질문에 대한 두 발제자의 답변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공개 토론회**

## 중동에서의 제국주의와 이란 전쟁, 한국군 파병 논란

3월 19일 (목) 오후 7시 30분

서울 교원투어빌딩 지하 4층 강연장 (중각역 5분 출구 도보 5분)

발제 **김영익**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 실패와 팔레스타인 해방의 전망) 공저자

※ 전문 통역사의 영어·아랍어 동시통역 제공

입장료: 8,000원 (학생·노년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지역 모임들 문의: 010-4909-2028 / wsrorg@ws.or.kr

**3.21 집회와 행진** 한국어, 영어 통역 제공 | 집회 후 행진

## 한국 정부는 이란 전쟁 파병 말라

##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 중단하라

일시: 3월 21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 종로 탑골공원 앞

주최: 취지에 동의하는 단체 연명 제안 중 문의: 010-8288-2652

# 미국의 힘에는 한계가 없을까?

미국 제국주의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위력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기란 너무나 쉬운 일이다.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인종 학살, 지난여름 이란을 상대로 이스라엘과 미국이 벌인 '12일 전쟁',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납치한 사건이 단적인 사례들이다.

미국이 세계에서 군사와 경제 모두에서 가장 우세한 강대국인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국방비로 약 1조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데, 이는 2위부터 10위까지 나라들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다.

도널드 트럼프 정권은 밥 딜런의 노래 가사처럼 '거대한 대포'와 '죽음의 비행기'를 가진 자신들이 전쟁의 주인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전쟁은 결코 고분고분한 하인이 아니며, 트럼프가 전쟁을 갖고 벌이는 도박에는 엄청난 위험이 따른다.

이란은 자체 제작한 드론으로 걸프 연안국들을 타격할 역량이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이미 입증해 보였으며, 현재 이란 내에는 준비된 친미 지도자도 없다.

트럼프는 신속한 승리를 바라지만, 자칫 장기전에 빠져 중동 전역을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

과거 미국이 거둔 군사적 승리는 지속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10월 7일,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당시 전개된 '항구적 자유 작전'은 9·11 테러에 대응해 미국 정부가 선포한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이었다.

두 달 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수도 카불 함락과 탈레반의 몰락을 자축했다. 부시는 자유와 민주주의, 여성

인권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군벌과 폭력배, 마약상들로 이뤄진 정권을 세웠다. 그 정권은 단 한 번도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했다.

2008년 11월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의 한 결혼식장을 폭격해 여성들과 아이들 37명을 살해했다. 미국의 잔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었다.

탈레반은 뿔뿔이 흩어졌을 뿐 결코 패배하지 않았으며, 곧 미국의 점령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끝없이 뻗은 산맥과 광활한 지형 탓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통제하려면 막대한 병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점령군은 현지에서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없었다.

부시와 그 측근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신속히 승리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고, 한층 더 대담해져서 2003년 이라크를 다음 표적으로 삼았다.

## 이라크 수렁

부시는 사담 후세인으로부터 이라크를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2002년 미국 정부는 이라크 침공 계획을 지원하라고 다른 국가들을 압박했다.

영국 노동당 총리 토니 블레어는 여기에 적극 호응했다. 거대한 세계적 반전 운동이 일어나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만, 2003년 3월 미국은 '충격과 공포' 작전을 전개해 이라크 도시들에 폭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침공하자 사담 후세인의 군대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쟁을 정당화했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 2003년 5월 1일 부시는 희색이 만연한 얼굴로 항공모함에서 '임무 완수'를 선언했다. 이 또한 거짓말이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어떠한 정통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정권을 세웠다. 팔루자와 바스라 등의 도시에서는 점령군에 맞서는 저항군의 군사적 저항이 계속됐다.

부시가 승리를 선언하고 1년 뒤,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미군이 수감자들에게 자행한 참혹한 가혹 행위가 폭로됐다.

점령 초기에는 시아파와 수니파 무



미국의 제국주의는 언뜻 막강해 보이지만 슬한 실패와 쇠락을 겪어 왔다

슬림이 단결해 점령군에 맞섰다. 그래서 미국은 이간질해서 각개격파하기 전략으로 선회했다. 점령 당국은 종파적인 시아파 국가를 세웠다. 그들은 이란에 기대를 거는 시아파 지도자들에게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점령자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 학살, 고문은 반동을 낳기도 했다. 반동적이고 종파적인 '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가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아이시스는 여타 테러 조직과 달랐다. 이들은 적을 공격하는 일보다 이슬람 칼리프 국가를 건설하는 데 집중했다.

2011년 여름, 미국은 이라크에서 철수했다.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 제국주의가 겪은 가장 큰 패배였다.

석유가 풍부한 중동 지역에서 자국의 패권을 관철시키는 데 혈안이 된 미국 정부 탓에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라크에서 겪은 패배의 망령은 여전히 미국 제국주의의 주변을 떠돌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지상군을 투입해서] 이란을 침공하기를 두려워한다. 전쟁을 시작하기는 쉽고, 군사적 승리를 선언하는 일 또한 간단하지만,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법이다.

이란과의 전쟁은 미국 내에서 트럼

프에 대한 반대를 심화시킬 수 있다. 트럼프는 이미 미국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지지율이 낮다.

미국인의 고작 4분의 1만이 이란 전쟁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전쟁은 트럼프에 대한 불만을 더 키울 수 있다.

## 이란 전쟁

게다가 이란 전쟁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세계 해운 물류를 위협하고 있다. 유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트럼프의 호언담이 무색하게 유가는 이미 오르고 있다.

미국 경제는 AI 거품 붕괴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태다. 거기에 더해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투자가 지지부진하다.

트럼프가 벌인 관세 전쟁은 세계 무역을 혼란에 빠뜨렸고, 인플레이션을 더 부채질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금리가 오를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의 부담을 키울 것이고, 정부의 부담도 키울 것이다. 30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연방 정부의 부채상환 부담도 견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이미 이자를 내는 데만 해마다 1조 달러 넘는 돈을 쓰는 실정이다.

트럼프와 세계 지도자들은 모두 지정학적 경쟁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다.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들은 그 경쟁 체

**트럼프는 이란에 맞서 신속한 승리를 바라지만 자칫 장기전에 빠져 중동 전역을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



사진 출처: 블룸버그

트럼프가 벌이는 일들은 미국이 겪고 있는 위기의 증상이다

제 안에서 자신의 몫을 확보하기 위해 싸우거나, 아니면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제국들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된다.

제1차세계대전의 참상 속에서 로자 룩셈부르크는 다음과 같이 썼다.

“유린당하고,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피바다를 헤치며 오물을 흘리고 있다. 그것이 바로 부르주아 사회의 모습이다. ... 교양, 철학, 윤리, 질서, 평화, 법치라는 허울을 쓴 채 말끔하고 도덕적인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탐욕스러운 맹수, 무법천지 악마의 연회, 문명과 인류를 갉아먹는 역병이 있을 뿐이다. 부르주아 사회가 적나라하게 본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오늘날에는 [미국 전쟁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그 탐욕스러운 맹수이며, 트럼프가 인류를 갉아먹는 그 역병이다. 백악관이야말로 무법천지 악마의 연회장 그 자체다.

하지만 이란의 노동자들은 이전에 혁명을 일궈낸 역사가 있다. 그들은 서방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을 지옥으로 만들 명분을 늘어놓으며 끊임없이 말을 바꾸고 있다.

처음에는 핵무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작 미국 정보 당국은 이란이 미국을 겨냥한 무기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게다가 트럼프 본인이

지난해 6월에 이란의 핵 시설을 이미 ‘초토화’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러더니 이제는 정권 교체가 목적이라고 했다. 공격이 시작될 무렵 트럼프는 이란인들을 향해 “우리가 일을 끝내면, 당신들이 정부를 장악하라”고 말했다.

### 번복

하지만 트럼프는 이란인들에게 통치자에 맞서 봉기하라고 촉구하면서도, 자기가 새로운 아야톨라를 “임명하는 데 관여해야” 한다고 우겼다.

그러더니 트럼프 정부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전쟁으로 끌어들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월요일, 미국 국무부 장관 마코 루비오는 이렇게 발표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행동에 나설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피해는 훨씬 컸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독자 타격할 준비가 되었었으며, 그러면 이란이 보복에 나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다음 날 트럼프는 정반대 이야기를 늘어났다. 자기가 이스라엘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미국을 전쟁으로 끌어

들었다는 견해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일각에서도 나온다. 그런 견해는 트럼프 지지층 일부의 주장과도 맞아 떨어진다.

극우 논평가인 터커 칼슨과 메건 켈리는 미군 병사들이 왜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죽어 나가야 하느냐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전쟁을 원하는 나쁜 이유가 있다.

네타냐후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와 레바논의 저항 운동 조직인 헤즈볼라에 대한 이란의 지원을 끊어 낼 기회가 왔다고 여기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 저항 세력들이 재건돼 이스라엘을 위협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

네타냐후는 올해 선거에서 총리직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연립정부 내 극우 강경파들의 지지가 절실한 처지다.

이스라엘 우파의 많은 수는 서안지구를 병합하고 다른 나라 영토에 더 깊숙이 침범하고 싶어 한다.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는 요르단, 레바논,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아우르는 ‘대이스라엘’을 꿈꾼다.

한때는 주변적이었던 이런 사상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점차 지지를 얻고 있다. 이는 네타냐후에게 중동을 더 장악하라는 압력이 되고 있다. 이란에서 내전이 벌어진다면 가자 인종학살 기획자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기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경비견이다. 건국 이래 이 테러 국가가 서방의 이익을 위협할 반란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성장했다. 독자적인 첨단 무기를 갖추고 있고, 미국이 직접 지원하는 무기에 대한 의존이 줄었다. 그만큼 미국이 쥐고 있는 리드줄을 더 팽팽하게 잡아당길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해마다 수십억 달러어치의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 그리고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때 이란에 사용한 거대한 ‘병커버스터’ 미사일처럼 이스라엘이 보유하지 않은 무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미국은 여전히 총들의 주체이며, 이

스라엘의 행동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것도 명백하다. 실제로 ‘12일 전쟁’을 멈추라고 이스라엘을 압박한 것도 트럼프였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전쟁에 나서는 까닭을 보면 그것이 미국 제국주의의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을 드러내는 징후임을 알 수 있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수십 년간 미국은 전 세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미국은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세계은행, IMF, 나토 등 자본주의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기관들을 설립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패권, 즉 다른 나라들을 이끌고 통제하는 능력이 계속해서 도전받고 있다. 그리고 자원과 시장을 놓고 신흥 강대국들,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 휘말리고 있다.

이런 경쟁은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 역내 강국들 사이의 갈등은 쉽게 확대되거나 훨씬 거대한 전투를 촉발할 수 있다.

### 극우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도 일정한 구실을 한다. 트럼프 행정부 안에는 현 상황을 서방의 속적에 맞선 ‘문명의 투쟁’으로 이해하는 자들이 있다. 스티븐 밀러나 피트 헤그세스 같은 극단주의자들은 인종차별, 이슬람 혐오, 백인 우월주의에 기초해서 움직인다. 어떤 자들은 자신들만의 종말론적 환상에 빠져 있기도 하다.

한 미군 장교는 상급자로부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라고 병사들에게 설명하라”고 지시받았다고 불평했다. 그 상급자는 “아마겟돈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언급하며 요한계시록의 특정 구절들을 인용했다”고 한다.

미국의 무기 기업들 역시 전쟁을 반기는 나쁜 이유가 있다. 바로 피 묻은 이익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전쟁 야욕은 사방에서 위기에 직면한 미국 제국주의의 병증일 뿐이다.

미국 제국이 무소불위인 듯 보여도, 트럼프가 만사를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주디 콕스 · 커밀라 로일

출처 Judy Cox and Camilla Royle, 'American power: Has it got a limit?' (2026. 3. 6) / 번역 김동욱

## 천궁-2 UAE 수출을 계기로 본다

# 자본주의하에서 무기는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김도형은 노동자 연대 기자

이란 전쟁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랍에미리트(UAE)에 천궁-2와 같은 '방어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없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평범한 중동 민중이 이란의 반격 미사일에 맞아 죽거나 다치지 않길 바라는 사람도 이란 미사일을 요격할 천궁-2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는 잘 구분되지 않는다. 대인 지뢰는 방어용 무기로 분류되지만, 전쟁에서 적군의 다리를 절단시키거나 죽게 한다.

방어와 공격은 동전의 앞뒷면이자 분리할 수 없이 연결된 전투 행위이기도 하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

이 있다. 거꾸로 방어는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최고의 방어 체계는 사소한 공격조차 그 효과를 극대화한다. 그래서 패트리엇이나 사드, 천궁-2 같은 '방어용' 무기에 그토록 공을 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방어용' 무기는 대개 민간인 거주지가 아니라 미사일 기지나 전투기 활주로 등 '공격용' 무기를 지킨다.

현재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골든 돔'은 중국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다. 성주에 배치돼 있는 사드(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을 위한 무기다.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은 방공 무기 체계다. 그러나 그것은 팔레스타인 식

민 점령과 가자지구 학살, 그리고 아류 제국주의 국가 이스라엘의 '대이스라엘' 야욕을 뒷받침하는 무기다.

이재명 정부가 UAE에 지원한 천궁-2가 요격 미사일일지라도, 이란 전쟁 전체를 놓고 보면 이란의 반격을 좌절시킴으로써 미국의 이란 공격을 뒷받침하는 데 쓰인다.

### '방어'라는 말이 가리는 것

지배자들은 군사적 경쟁과 전쟁에 대중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방어,' '방위' 같은 이데올로기적 용어를 사용한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지킨다'는 관념을 퍼뜨리는 것이다. 실제로는 국민 중 일부(자

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그것도 선제 공격을 할 때조차 말이다.

그 밖에도 각국 정부는 전쟁 준비 예산을 '방위' 예산으로 포장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정부 부처를 '국방부'라고 부른다.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지배계급이 '방어 전쟁'을 운운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사기 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썼다.

"노예 100명을 소유한 노예 소유주가 노예 200명을 소유한 노예 소유주에 대해 '공정한' 노예 재분배를 요구하며 전쟁을 벌인다고 상상해 보라. 이런 사례에 '방어적' 전쟁이나 '조국 방위' 전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역사적으로 오류일 것이다."

## 무기와 계급

자본주의하에서 군사 무기가 방어용이나 공격용이나, 비살상용이나 살상용이나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한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군사 무기는 대중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F-35 전투기, 'K-방산'이 개발한 K-2 흑표 전차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노동자들은 전혀 통제할 수 없다. 그 무기들은 ('외환' 유치 기도에 대한 수사에 반발한) 군부의 손아귀에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와 그것이 독점하는 군사 무기의 계급적 성격과 관련 있다.

자본주의 국가는 겉보기에 중립적 기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본가 계급의 이윤과 권력을 보호하며 계급 질서를 수호한다. 그리고 세계시장에서 벌어지는 자본가들 간 경쟁에서 자국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수호한다.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데서 무장력은 필수다. 레닌은 국가를 "특수한 무장 집단"이라고 했다.

자본주의 초창기에 부르주아지가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과정(시초 축적)에서부터 국가의 무장력이 동원됐다. 이후 기업의 이윤 축적을 위협하는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 파업을 진압할 때 국가는 무장 경찰을 투입한다. 체제를 위협할 만큼 강력한 대중 저항이 일어나면 국가는 군을 동원하기도 한다.

### 지배자들의 필요

특히, 자본주의 국가들 간 경쟁 시스템 속에서 한 국가의 군사력은 그 나라 자본가들이 세계시장에서 벌이는 경쟁을 뒷받침한다.

그래서 각국 정부들은 어마어마한 자원을 무기 개발·생산에 쏟아붓는다. 미국은 공식 통계로도 노숙인이 77만명(2024년 기준)에 달하지만, 올해 미국 국방비는 9,006억 달러(약 1,200조 원 이상)에 달하고 그중 상당 부분이 첨단 무기에 쓰인다.

20세기 초 독일에서 반전·반군국주의 운동에 앞장선 혁명가 카를 리프크네히트는 계급 사회인 자본주의 사회의 무기 생산에 대해 이렇게 썼다.

"경제적 지위에 따라 계급 구분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계급 간 정치적 권력 관계는 경제적 지위뿐 아니라 지적·도덕적·물리적 수단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강조는 인용자]

"이는 사회 투쟁에서 무기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 준다. ...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을 강제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바로 이 무기 기술에 달려 있다.

"... 계급 분열은 무기 기술의 발전과 병행돼 진행된다. 따라서 무기 생산은 갈수록 전문적인 기술이 된다. 게다가 계급 지배는 원칙적으로 한 계급이 다른 계급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으므로 일어난다. 무기 기술의 향상은 무기 생산을 더욱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게 하므로, 무기 생산은 점차 경제적 지배계급이 독점한다."(《군국주의와 반군국주의》, 영어판)

그렇게 생산된 군사 무기들은 지배 계급의 필요, 즉 계급 질서 수호와 국가들 간 쟁투에 쓰인다. 지배자들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에서 노동계급 대중이 얻을 이익은 없다.

UAE를 비롯한 걸프 군주국들은 어마어마한 '국방' 예산을 들여 각종 첨단 무기로 무장한다. 그 무기들은 노동자·빈민·이주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

UAE로 수출된 천궁-2가 이란의 반격을 막는 데 쓰이지만, 그것은 UAE 지배계급의 이익(역내 정치적·경제적 영향력, 미국과의 동맹 유지 등)을 위한 것이다.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과 협력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천궁-2는 바로 그 목적에 기여한다.

걸프 국가들에 대한 한국산 무기 수출은 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확산에 일조할 뿐이다. '평화' 시기에는 역내 강국들 간 경쟁 격화와 걸프 군주들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정부가 중동 국가들에 '방어용,' '비살상용' 무기를 포함해 어떠한 무기라도 수출·지원해선 안 되고 트럼프의 파병 요구도 거부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이재혁

# 지방선거에서 주류 정치권 진출 기회 노리는 극우

각 정당들이 속속 6월 3일 전국지방 선거 체제로 들어가고 있다.

검찰 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나 국민의힘의 지도권 내분 등도 그 배경엔 당권과 지방선거 공천권에 대한 경쟁이 있다. (그게 전부는 아닐 지라도 말이다.)

특히 국힘의 동향은 극우의 부상을 염려하고 막아 보려는 사람들에게는 불가피한 관심사다. 우파 유권자들은 (평소에 국힘을 못마땅해 해도) 선거에서 대체로 국힘(과 그 전신 정당들)에 투표하기 때문이다.

지금 공천권을 위임받은 이정현은 박근혜 정권 시절 새누리당 당대표 출신으로 세월호 참사를 우롱했고, 대통령직 파면 때까지 박근혜를 옹호했던 반동적 정치인이다. 장동혁이 극우 중심 보수대연합으로 지방선거에 임하겠다는 이정현을 다시 불러들였다.

그런 이정현이 공천관리위원장 사퇴 소동을 일으킨 것은 서울시장 오세훈이 현 부산시장 박형준과 함께 '절운'을 요구하며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 등록을 하지 않는 것 때문이다.

그러나 오세훈은 그저 기회주의자일 뿐이다. 지난해 윤석열 탄핵에는 한 마디도 하지 않다가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서둘러 선거캠프 사무실 계약까지 해 놓고도 당선 가능성이 낮아 보이자 불출마를 선언하고 김문수와 거리를 뒀다.

그래놓고 얼마 뒤 모스 탄을 서울시 이름으로 공식 초청했다. 모스 탄은 미국 마가 극우의 일원으로 윤여계인 세력과 손잡은 반중 극우 부정선거론자다. 이게 알려져 비난 여론이 너무 커지자 황급히 초청을 철회했다.

그런 오세훈을 달랜다고 국힘 지도부는 무기징역을 막 선고받은 윤석열의 정계 복귀를 반대한다는 하나마나한 얘기를 '절운 선언'이라고 발표하고, 이정현은 사퇴 선언 이틀 만에 복귀했다. 모두 쇼다. 국힘 정치인들의 식언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다.

금세 공판위장에 복귀한 이정현은 현 충북도지사 김영환을 컷오프했다. 현 부산시장 박형준도 컷오프하려다가 내부 반발로 실패했다. 지금 충북도지사엔 윤석열 변호인을 한 검사 출신 윤갑근이, 부산시장에는 '찐운' 검사 출신이자 윤 탄핵 반대파인 주진우가 출마했다. 그런데도 오세훈은 17일 오후 후보 등록을 했다.



국힘의 쇼는 인기가 없지만, 극우가 우파 다수를 흡수할 잠재력을 무시해선 안 된다

## 중도의 기회주의는 극우를 오히려 이롭게 한다

계엄 전후로 원외 강성 극우의 압력을 국힘 당 내로 전달하는 매개 구실을 한 것은 주로 국힘의 지역 조직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표 장동혁과 최고위원 김민수 등 극우 지도부가 원외의 극우를 중재하며 이끌고 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말이 많아도 국힘에서 여전히 극우파가 우세하다. 그리고 전통적 우파층의 선거 결집을 무시할 수도 없다. 게다가 기층 우파에서도 극우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정당 지지율만 보고 중도층이 극우화한 국힘을 외면해 버릴 거라고 보는 것은 인상에 불과한 견해로 위험하다.

정세 변화 속에서 극우가 중도 우파를 흡수할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세계적으로 극우의 부상은 체제의 위기와 중도의 실패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극우 국힘을 고립시켰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중도 실용을 표방하고 중도우파를 포섭하려 하는 것도 위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장에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극우의 주장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줘, 주류 정치 지형을 우경화하게 하고, 개혁은 사라져 개혁 염원층, 특히 청년들을 환멸에 빠지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극우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게 불과 4년 전이다.

당장 극우는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에게 찢찢매는 것을 보며, 원내외에서 자신감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게다가 부통령 밴스 등 미국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세이브코리아 집회를 이

끌었던 손현보 등 한국 극우 인사들을 직접 챙기고 있다.

트럼프의 이란 전쟁 개시에 환호했던 극우들은 전쟁이 미국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잠시 실망한 기색이지만, 트럼프가 한국에 파병 압력을 가하는 것을 여권에 대한 공격 소재로 삼으려 한다.

한미동맹을 강조해 온 국힘은 국회를 통해 결정하라며 정부·여당에 결정의 부담을 떠넘겼다. 파병을 하든 안 하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결정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파고들어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것이다.

전광훈의 자유통일당은 파병을 촉구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보호뿐 아니라 "제한적인 기뢰 부설함 타격 역시 검토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3월 16일 전광훈의 <자유일보> 헤드라인은 "트럼프의 경고...연합군 불참 국가 기억하겠다"이다.

반면, 오늘까지(3월 17일 낮 현재) 민주당 안에서 이란 파병에 명확히, 공개적으로 반대한 의원은 이기헌·위성곤 의원 둘 뿐이다. 진보당 의원들을 포함해도 현재 국회에 파병 반대 의원은 10명도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여권은 중도실용을 자처하며 중도 지대를 차지해 국힘을 고립시켰다는 초기회주의적 책략에 의존하고, 좌파 정당들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민주당 왼쪽의 정치적 공백을 채우는 세력을 자임하는 방식으로 반극우 공생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런 좌·중 연대 노선(민중전선 전략)은 앞서 지적했던 극우 부상의 근본적 배경 요인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당장은 유리해 보여도 머지않아 위험하다.

오로지 노동계급의 대중 투쟁으로 극우 반대, 사회 개혁, 반제국주의 투

쟁들을 전개해야 극우를 약화시킬 진정한 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국힘의 기초의원 공천은 극우의 진입 통로가 될 것

극우 정치 세력들은 여러 단체로 나눠 있고 국힘 지지율이 현재 낮지만, 경계할 요소들을 꼽아 보면 이렇다.

국힘은 전통적으로 지배계급의 제1선호 정당이다. 우파층 일반은 선거 때 국힘으로의 결집력을 보여 왔다. 또, 극우 정치 지도자들은 대체로 국힘과 단절하기보다 연대해서 국힘의 극우 성격을 더 강화하고 안착시키려 한다.

지난달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황교안의 자유와혁신, 조원진의 우리공화당, 고영주의 자유민주당 등 원외 극우 정당들은 연대 선언을 했다. 황교안은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선거는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우파층이 투표 결집력이 높기 때문에 힘을 집중하면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는 소기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실제로 극우 정치 세력은 진입 장벽이 높은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들보다는 기초의원 등으로 주류 정치권에 들어오려고 한다. 극우 청년들이 특히 그렇다. 가령 전광훈은 수년간 지역 조직 기반 구축을 강조해 왔다. 자유마을 조직이 그것이다. 소규모 극우 개신교회들의 네트워킹, 리박스쿨도 지역 조직 구축과 관련돼 있다.

지난해 극우가 초등교육에 침투해 세상을 놀라게 했던 리박스쿨은 국힘 기초의원들과의 연관이 드러나기도 했다. 가령 도봉초등학교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도봉구의회 국힘 의원 두 명(황수빈·이호석)이 리박스쿨에 특혜를 줬다며 폭로했었다.

관악구의원 최인호는 고교 시절 자신의 학교 선생님을 "좌익 사상 교육"을 시킨다며 고발해 극우 내 명성을 얻어 2022년 지방선거에 국힘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그때 나이가 만 21세였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극우 인사들이 주류 정치로 들어오는 통로를 주로 국힘이 제공할 것이다. 청년 우대를 빙자해 극우 청년들을 기초의원에 대거 공천할 것이다.



# 트럼프·네타냐후 전쟁 반대 3·29 집중 행동의 날 참가 호소

## 가자지구 출신 재한 팔레스타인 여성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와 한국 반전 운동의 전통이 만나게 합시다”

트럼프는 미국이 무소불위의 강대국임을 천명하고 싶어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나라 미국과 중국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핵심 이유는 중국이 베네수엘라 석유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사라진 지금 누가 중국에 석유를 공급할까요? 다름 아닌 이란입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와 그의 아내를 체포한 후 '이거 쉽잖아?' 하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러나 이란은 베네수엘라와 다릅니다. 이란은 매우 크고, 인구도 많고, 수천 년 역사에 뿌리내린 문명을 가진 나라입니다.

한편, 이스라엘도 이란을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은 미국보다 한참 약하지만 중동에서 '넘버원'이 되겠다는 야심이 있습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이렇듯 끝없는 전쟁의 설계자들입니다. 3.29 행동처럼 이들의 패배를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트럼프의 가자 '평화 이사회'는 부동산 개발이나 '중동의 리비에라'를 들먹이지만, 정작 건물 잔해와 봉쇄 속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더욱이 이 모든 약속은 하마스가 무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팔레스타인인들은 역사 속에

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고 이스라엘이 말하는 평화에 기회를 줬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슬로 협정의 결과로 들어선 팔레스타인당국(PA)은 이스라엘과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부속 기관처럼 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팔레스타인인들은 하마스 등의 저항 단체가 무기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자 '평화 이사회'는 가자지구 사람들을 위한 기구가 아닙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란 전쟁 파병에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이라크 전쟁에 대한 역사적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라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미국의 전쟁만 아니었으면 살 수 있었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름다웠던 나라가 파괴됐습니다.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면 한국이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거짓말을 거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다른 이들을 파괴하는 것 위에 지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민들의 안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최근 중동에서 미사일 포대가 부족해지자 한국에 있던 미사일 포대를 빼내 간 것을 보십시오.

3.29 행동은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뿐 아니라 한국의 반전 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잇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 알리 세하타 (이집트인 난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공동간사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전쟁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합니다”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막 시작됐을 때 많은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들은 이스라엘이 중동으로 전쟁을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이제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레바논, 예멘, 이라크 등 중동 국가들을 폭격해 왔고, 이제는 이란을 폭격하고 있고, 다른 아랍 국가들도 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고 중동 지배력을 놓지 않기 위해 계속 애써 왔습니다. 중동이 전략적으로, 특히 에너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나름대로 중동 6개국의 영토를 빼앗아 '대이스라엘'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전 세계에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전 협상에서 미국은 자신이 내건 모든 조건을 사실상 이란이 수용하겠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민주주의나 자유를 위한 전쟁이라는 이야기들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도 당시에는 민주주의를 선사한다는 명목하에 이뤄졌지만 단 한 줄의 민주주의도 기록으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실체는 파괴와 그 지역 민중의 고통밖에 없습니다.

중동에서 자원과 패권만 생각하는 미국은 이란과 인근 걸프 국가들의 갈등을 종교적 구도로 보는 관점을 펴드립니다. 그러나 현실과 전혀 맞지 않

습니다. [이란과 갈등 관계에 있는] 바레인이나 사우디에도 시아파가 있고, 이란에도 수니파가 있습니다. 많은 수니파 아랍 대중이 지금 남부 레바논에서 시아파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는 것을 지지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번 전쟁의 본질은 지정학적, 정치적 갈등에 있습니다.

한편, 중동 전역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미국은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이라든지 영토 병합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은 결코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폭력과 불안정을 낳을 것입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전쟁에 반대하고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한 행동에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국제 연대만이 평화를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그리고 중동의 민중과의 연대는 여러분 자신의 생명과 평화까지 위협하게 될 미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맞서서 함께 연대하자고 호소 드립니다.

인터뷰-정리 김종환 / 통역 박이랑

※ 전문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땅의 날 50주년 3.29 전국 집중 행동의 날**

**트럼프·네타냐후의 전쟁에 반대한다!**

팔레스타인에 해방을! 이란 공격 멈춰라! **3월 29일(일) 오후 2시**

중동에서 손 떼라! 전쟁 지원 말라! **서울 열린송현녹지광장 입구** [안국역 1번 출구]

○ 아랍어, 영어 통역 제공  
○ 집회 후 미국 대사관, 이스라엘 대사관 앞 행진